

광주교육청, 1차 추경안 2조9823억 편성...늘봄학교 등 집중

본예산 대비 3005억 증가...디지털 교육·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유아교육 강화·미래교육 환경 조성 중점...아이들 꿈 실현 촘촘히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혁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교육 핵심 현안을 집중 추진한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조 9823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 3005억 원이 증가한 예산안이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필요한 세입재원 3005억 원은 보통교부금 확정 차액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547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4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1억원,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347억원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기반 교

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진로진학 교육운영,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

우선 늘봄학교 운영 학교 확대와 안착을 위해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분야에 86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1학기 우선 시행 늘봄학교 확대 이후 2학기 전면 시행을 대비하고 있다.

2025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대상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22억원도 편성했다. 또 디지털교육에 적합한 최적의 네트워크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10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를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로, 광주AI 미래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학력책임 강화 및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 39억원과 글로벌 진로·직업탐색 국제교류 및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5억원을 편성했다.

이대 정월 증원에 따른 고3 진학지도 지원을 위해 전체 일반고 49개를 대상으로 수능대비 학습동아리 지원비 1억 4700만원을 반영했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함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187억원(광주수창초 등 8개교)과 학교신·증설, 과밀학급해소 27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70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단가 인상 등으로 어려운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비(표준교육비 2% 인상 분) 21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교직원 인건비 211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최근 광주교육시민합치진흥원 대강당에서 교원과 학부모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제교육 비전 선포 및 설명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유아교육 강화와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라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교육에 담아 학생의 변화

를 이끌어내고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800억 투입...강진에 국내 최대 학생수련시설 들어선다

전남도교육청, 강진군과 업무협약

전남교육청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깃든 강진군에 국내 최대 학생수련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강진군과 (가칭)전남도교육청다산 학생수련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다산학생수련원 건립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 기반 조성 ▲지역 문화유산 및 기반 시설을 활용한 수련원 프로그램 다양성·전문성 확보 ▲학부모와 지역민을 위한 일부 수련원 시설 개방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육비 특별회계와 지자체 대응부자로 약 800억원이 투입될 다산학생수련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독서인문교육과 실사구시의 정신, 문(文)과 무(武)의 조화, 통합적 사고·바른 인성·도전·모험 등 독서와 수련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00여명이 동시 합숙할 수 있는 규모의 생활관, 현장 체험학습 및 각종 대회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 대강당, 학생들의 독서인문교육 등에 활용할 소규모 강의실을 갖춘다.

다산학생수련원 건립은 2022년 강진원 강진군수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8일 강진 신전면 별정리 일원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게 건의한 사업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이 숨 쉬고 있는 강진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수련 활동을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현장교육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강진군에서 부지를 제공한다.

지난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강진원 군수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2023년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글로벌 미래교육 수련시설을 목표로 사업계

획을 구체화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문답과 토론 교육을 실현하고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만들어 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미래 교육을 위해 전남교육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다”며 “그 실용 교육 정신을 받들고 가르침을 새겨 다산의 정신과 열이 깃든 강진에 다산학생수련원 건립해 전남의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스트, 극노화연구클러스터 광주 유치 추진

의료헬스케어·고령친화산업 활성화...미래산업기반 구축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센터장 오창명)가 한국형 극노화연구클러스터 광주 유치에 나섰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최근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극노화연구클러스터 구축사업' 기획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극노화, 즉 노화 극복이란 '늙는 것을 막아낸다'는 뜻의 '항(抗)노화'뿐 아니라 젊어진다라는 뜻의 '역(逆)노화'를 합친 용어로, 유전자 관련 정보를 토대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극노화 연구 및 의료산업 동향을 중심으로 혁신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연구 추진 현황과 관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극노화 클러스터를 광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GIST 오창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전남대학교병원 박광성 교수(노화과학연구소장), 광주시 로봇기전의료산업과 박용범 팀장이 기획 추

진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박재일 책임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 박우진 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오창명 센터장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소개 및 한국형 극노화연구클러스터 사업 기획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박재일 책임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 박우진 센터장은 각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및 극노화 관련 연구 추진 사례와 노화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망에 따른 광주 의료산업 추진 현황 등을 소개했다.

오창명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한국형 극노화 연구 클러스터 구축' 기획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라며, “본 클러스터의 성공적 광주 유치를 통해 의료·헬스케어 및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해 지역의 미래 산업기반 구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산학협력단, 상인·소상공인 연합회와 협약

업종별 특화·전문교육 지원...매출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노선식)은 최근 광주시 상인연합회(회장 김승재),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와 잇달아 광주·호남지역 소상공인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 간 사업 운영을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 및 정보 교류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GU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과 교육과정' 및 기타 정부 정책사업 추진 시 훌륭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교는 연합회 소속 소상공인의 SNS 마

케팅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매출액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코칭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연합회는 교육생 모집, 교육 내용 공지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홍 교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특성과 거점대학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광주와 호남 소상공인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업종별 특화교육 지원을 통해 필연적 매출액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